

유리섬유 시장 3파전 양상

한국베트로텍스 · 럭키화이버 신규참여 ... 수입 1만톤 이하로 격감

연간 7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산업소재인 Glass Fiber 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한국Fiber가 독점 생산해왔으나, 프랑스 Vetrotex와 한국유리가 합작한 한국 Vetrotex가 지난 6월 연산 2만톤 규모로 유리섬유 시장에 참여했고, 올해 말부터 연산 2만5000톤 규모체제를 갖추고 본격 생산에 들어가는 럭키FiberGlass와 함께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3년 국내 유리섬유(GF)수요는 3만5000~4만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상당부분 수입되고 있다.

78년 자체기술로 GF를 개발한 한국Fiber는 현재 연간 1만2000여톤의 GF를 생산, 낱시대 원자재 및 그라인더휠 보강재 등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GF 플랜트를 수출, 현재 연간 1000여톤을 역수입하고 있다.

또 프랑스와 50대50으로 합작, 89년에 설립된 한국Vetrotex는 800억원을 투자, 군산 GF공장을 세워 지난 6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표1> 국내 UPE 생산현황

(단위:톤)

업 체 명	생산능력	연도별 생산량		
		1989	1990	1991
애 경 화 학	25,000	13,608	17,000	20,000
미 원	15,000	13,132	13,572	15,000
내 쇼 날 합 성	24,000	13,270	15,500	17,000
고 려 화 학	10,000	4,200	4,000	5,000
기 타	12,000	8,700	11,000	11,400
합 계	86,000	52,910	61,072	68,400

<표2> 국내 Glass Fiber 생산 및 수입현황

(단위:톤)

업 체 명	생산능력	연도별 생산량			
		1990	1991	1992	1993
한국FiberGlass	15,000	10,000	12,000	12,000	12,000
럭키FiberGlass	25,000	—	—	—	15,000
한국Vetrotex	20,000	—	—	12,000	20,000
수 입	—	23,000	16,000	10,000	3,000
공 급 계	—	33,000	28,000	34,000	50,000

주) 92,93년은 추정치

럭키FiberGlass도 럭키와 미국 오웬스코닝화이버글라스, 일본 아사히글라스 등 3사가 합작해 90년 5월 설립했고, 92년 8월 GF공장을 완공, Yarn · 로빙 · Mat 등으로 가공, 국내수요업체에 공급하는 한편 합작업체를 통해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또 국내 수요추이에 따라 2~3년내에 연산 5만톤 체제로 증설할 계획이다.

93년 GF 공급예상량은 한국Fiber 1만2000톤, 럭키Fiber-Glass 1만5000톤, 한국Vetrotex 2만톤 및 수입 3000여톤 등 총 5만여톤에 이르고 있으나, 수요는 공급에 약간 못미쳐 실제생산량은 예상보다는 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F는 UPE(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와 복합해 FRP(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s)를 제조한다. FRP는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워 내식 · 내열 · 내후성이 우수한 강화플라스틱이다.

현재 UPE 생산업체는 애경 · 미원 · 내쇼날합성 등을 포함 2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또 일부 UPE 제조업체들은 GF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UPE 수요업체에서 UPE와 함께 GF 공급을 요구, 구색제품으로 대만 · 미국 등지에서 저가의 GF를 수입,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유리섬유는 특정 원료를 용융하여 가늘고 길게 성형한 뒤 급냉시켜 만든 섬유형태의 유리말한다.

기계적 ·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여 고성능 복합소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열전도성이 낮아 단열효과를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 제조공정에 따라 Yarn, Roving, Chopped Strand, Chopped Strand Mat로 나누어지며, 성형법에 따

라 Hand Lay(Spray) UP, S(B)MC, Filament Winding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주 용도는 옥조 · 물탱크 · 자동차부품 · PCB(인쇄회로기판) 등 절연성을 이용한 각종 전기 · 전자부
품부터 고강도가 요구되는 항공기 부품에 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2/11/15>